



헤세와 생철학

Hesse und die Lebensphilosophie

저자 (Authors)	홍순길 Hong Soon-Kil
출처 (Source)	헤세연구 17 , 2007.6, 83-103 (21 pages) Hesse-Forschung 17 , 2007.6, 83-103 (21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헤세학회 Koreanische-Hesse-Gesellschaft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1397225
APA Style	홍순길 (2007). 헤세와 생철학. 헤세연구, 17, 83-103.
이용정보 (Accessed)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165.***.117.111 2017/11/07 17:0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헤세와 생철학

홍순길 (목원대)

“생명이란 기쁨이 솟아오르는 샘”

-니체

I. 들어가는 말

헤세를 생철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은 헤세 연구에 있어서 지금까지 간과해 온 새로운 분야이다.¹⁾ 헤세 문학에서 제기되는 문명과 문화의 비판, 탈도시와 자연추구, 이상주의적 도덕거부와 획일적 학교교육에 대한 항거, 자아발견, 생의 긍정, 운명애, 체험적이며 낭만적인 인간과 삶의 파악 등이 생철학의 영역에 속한다. 헤세 문학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인간과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를 고찰해야 한다. 물질문명과 과학지상주의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삶이 피폐해지는 오늘날 헤세의 생철학을 되새겨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고찰일 것이다.

헤세문학의 사상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헤세가 직업작가로서 나가기에 앞서 독서와 사색을 통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던 작가 및 사상가들에 대한 영향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헤세의 튀빙엔 Tübingen과 바젤 Basel 시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튀빙엔에서 헤세는 광범위한 독서를 통하여 문학 및 철학에 심취하였는데, 특히 괴테, 훔볼트, 노발리스를 비롯한 낭만주의 작가들, 그리고 니체 Friedrich Nietzsche와 부르크하르트 Jakob Burckhardt

1) Fritz Böttger는 『싯다르타 Siddhartha』를 ‘생철학적 lebensphilosophisch’이라고 간단히 언급한 적은 있다. Fritz Böttger: Hermann Hesse. Berlin 1977. S. 305.

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얼마 안 있다가 옮긴 바젤은 그의 말대로 니체와 뵉클린 Alfred Böcklin의 도시였으며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르크하르트와 딜타이 Wilhelm Dilthey의 도시였다. 이 바젤의 시대적인 인물들은 그의 문학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니체와 딜타이의 생철학은 헤세의 삶과 문학의 핵심을 이룬다.

본 연구가 생철학에 대한 어떤 철학적 접근이 그 목적이 아닌 관계로 여기에서는 생철학의 개념정의, 체험문학으로서의 생의 체험 및 생의 긍정에 한해서 다루질 것이다.

II. 생철학

사전적 의미에 있어서 ‘생철학 Lebensphilosophie’이나 ‘생철학적 lebensphilosophisch’이라는 개념은 다의적이어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개념에서 우리말의 ‘삶’만을 강조하면 삶의 지혜나 방편을 뜻할 수도 있고, ‘생명’을 강조하면 생물학적 인간학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첫째, 인생관의 확립을 꾀하는 처세 내지 인생철학을 뜻하며 둘째, 실생활과 철학의 일치를 강조하는 실천철학을 뜻하기도 하며 셋째, 생명을 파악하려는 생명철학을 뜻하며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19세기 이후 현대철학에서 다루는 철학적 인간학을 말한다.²⁾ 본 논문에서는 마지막 의미로 고찰될 것이다.

생철학의 효시는 헤겔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의 이성주의에 반기를 든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인데, 그는 인간의 삶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인간관은 염세적 허무주의에 빠져 빛을 잃었다. 헤세는 그의 생철학에 관심이 없었으며, 그가 관심을 갖게 된 사상가는 후일 생철학을 집대성한 니체나 딜타이였다.

생철학의 핵심은 생의 원천인 감각과 본능을 인정하고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억압하는 이성이나 스

2)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책세상, 2006. 75쪽 참조.

토아적 종교적 독단은 생철학에서 비판받는다.

니체는 이성 우월주의에 빠진 인간을 대지에 생긴 피부병적 요소로 보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하지 못하고 이성 우월, 인간 중심적 사고와 행위를 하기 때문이었다. 대지는 하나의 피부이며 피부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 병들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인간’.”³⁾이라는 것이다.

생철학에서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에너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니체의 생철학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니체는 “생명과 힘에의 의지가 퇴조하는 곳에서는 생리적인 퇴행, 즉 오직 데카당스만이 있을 뿐이다.”⁴⁾라고 말하였다. 생명과 힘의 의지가 없는 인간은 “나약한 인성 schwäche Persönlichkeit”⁵⁾을 갖게 되고, 그것은 “자기 왜소화 Selbstverkleinerung”⁶⁾를 뜻한다. 니체의 ‘힘에의 의지’란 “힘을 향한 의지, 즉 생각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생명의 원리를 의미한다.”⁷⁾ ‘힘에의 의지’가 강한 자, 생명이 넘치는 차라투스트라는 “생명의 옹호자”⁸⁾이다.

니체는 “생의 충일감과 삶에 대한 진실한 감사의 마음,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인간의 고귀한 태도를 하나의 문화의 형태로 발아된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한다. 자연, 몸, 디오니소스, 대지 등의 개념과 같은 그의 탈근대기호들은 삶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생명의 언어로 사유방식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⁹⁾그래서 니체는 “개인이 성숙해지고 역사가 생명력 넘치는 예술작품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전범을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하면서 이를 명량성, 현존에 대한 긍정, 윤리적 본성이 진실하게 실현될 수 있는 문화와 같은 개념”¹⁰⁾으로 제시한다.

3) Friedrich Nietzsche: Zarathustra II. Von grossen Ereignissen. Bd. 4. S. 168. In: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n in 15 Bänden. Hrsg. v.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München 1980. 앞으로는 전집은 KSA로 표기하며 그 뒤의 숫자는 권수를 뜻함.

4) Friedrich Nietzsche: Der Antichrist 17. KSA 6. S. 183.

5) Friedrich Nietzsche: Vom Nutzen und Nachteil der Historie für das Leben. KSA 1. S. 274.

6) Friedrich Nietzsche: Nachgelassene Fragmente. 8[15], KSA 10. 338.

7)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서울. 2005. 303쪽.

8) Friedrich Nietzsche: Nachgelassene Fragmente. 22[3], KSA 10. S. 623.

9)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같은 책. 302쪽.

헤세는 니체의 『비극의 탄생』에서 디오니소스적인 생동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디오니소스적인 체험이 아폴론적인 형식의 무미건조함을 극복하고 이 둘의 결합을 통하여 이상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 것이다.

신의 영역을 벗어난 인간의 삶의 목표는 저 세상이 아니고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며 그가 딛고 서 있는 대지이다. 그가 대지에서 태어났듯이 죽어서 다시 대지로 돌아간다. 그는 이 대지에서 같은 대지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어울려 기쁨과 슬픔, 고통과 쾌락을 맛본다. 인간으로 이 대지에 산다는 것은 - 그것이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인간은 인생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긴다. 좋은 것과 나쁜 것,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모두 그 의미를 가진다. 헤세의 사고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인간중심적이고 생철학적인 기반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헤세는 니체와 같이 일련의 철학적 명제로서 생과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신의 저편에 있는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힘과 의지의 관점에서 선과 악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신을 떠나서 허무를 느낀 것도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헤세는 니체의 추종자가 아니다.¹⁰⁾ 그의 생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도 헤세는 철학적 사유의 목표가 없는 순수한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열등한 인간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논리로까지 발전한 니체의 생명과 힘의 생철학에 대해서 헤세는 단호한 반 니체주의자가 된다. 헤세는 인간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있는 그대로 가치 기준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헤세에게 있어서 모든 인간은 모두 그 가치를 가진다. 육체적 불구자 보피 Boppi가 카멘진트의 유일한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체자 티토 Tito 역시 유리알 유희의 명인에 의해 선택된 인간이다.

생에 적대적인 것을 헤세의 생애와 사상에서 찾아본다면 몇 가지가 된다. 예를 들어 종교, 학교 교육, 제 정치 이념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생애에 적대적인 것은 종교다. 이 점에 있어서 헤세와 니체는 같은 길을 걷는다. 헤세가 기

10) 김정현: 위의 책. 305쪽.

11) 헤세와 니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홍순길: 헤세와 니체 I. (헤세연구 13). 2005. 71-75쪽 참조.

독교 토양 위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교회와 그 예배형식, 신과 그의 독선적 세계 질서를 믿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개인적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이념이나 집단적 종교행위나 독단에 대해서는 완강히 거부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의 생철학적인 거부반응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형식적 기독교인이었고, 세계의 여러 종교에 심취한 기독교인이었다.

역사학자인 딜타이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그의 세계관은 종교, 예술과 형이상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포함한 세계 전체의 의미와 의의를 찾으려고 한 것이었다. 바로 이 세 유형의 세계관이 그의 생철학을 이루는 토대가 된다.¹²⁾ 딜타이의 생철학은 『체험과 문학 Das Erlebnis und Dichtung』의 「괴테와 시적 상상 Goethe und die dichterische Phantasie」속에 잘 나타나 있다.

문학은 삶의 서술이며 표현이다. 문학은 체험을 표현하고 삶의 외적 현실을 서술한다. 나는 삶의 여러 양상을 독자들의 회상 속에서 불러일으키려고 한다.

Poesie ist Darstellung und Ausdruck des Lebens. Sie drückt das Erlebnis aus, und sie stellt die äußere Wirklichkeit des Lebens dar. Ich versuche die Züge des Lebens in der Erinnerung meiner Leser wachrufen.¹³⁾

딜타이는 생명력 넘치는 삶의 축제가 벌어지는 한 전형적 소설을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와 낭만주의 작가의 소설에서 찾았다. 그는 이런 소설에서 인간이 온갖 체험과 고난의 여러 단계를 통하여 자아를 실현한다고 보았다.

개개인의 삶에서 규칙적인 발전이 나타나는데, 생의 각 단계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보다 더 높은 단계의 토대이다. 생의 불협화음과 갈등은 성숙과 조화로 나아가는 개인의 필요불가결한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상의 인간들의 최고의 행복’은 인간 존재 통일적이고 확고한 형태로서의 ‘개성’이다. 레싱의 힘겨운 생애를 밝게 비춘 개인의 발전이라는 이 낙천주의는 결코 괴테의

12) Vgl. Otfried Höffe(Hrsg.): Klassiker der Philosophie in 2 Bänden. Bd. 2. 1981. München. S. 200 f.

13) Wilhelm Dilthey: Das Erlebnis und die Dichtung. 15. Aufl. Göttingen 1970. S. 126.

빌헬름 마이스터에서 보다 더 명랑하고 생명력 있게 표현된 적이 없다. 사라지지 않는 삶의 기쁨의 광채는 이 소설과 낭만주의 작가들의 소설에 담겨 있다.

Eine gesetzmäßige Entwicklung wird im Leben des Individuums angeschaut, jede ihrer Stufen hat einen Eigenwert und ist zugleich Grundlage einer höheren Stufe. Die Dissonanzen und Konflikte des Lebens erscheinen als die notwendigen Durchgangspunkte des Individuums auf seiner Bahn zur Reife und zur Harmonie. Und „höchstes Glück der Erdenkinder,, ist die „Persönlichkeit,, als einheitliche und feste Form des menschlichen Daseins. Nie ist dieser Optimismus der persönlichen Entwicklung, der auch Lessings harten Lebensweg erleuchtet hat, heiterer und lebenssicherer ausgesprochen worden als in Goethes Wilhelm Meister: ein unvergänglicher Glanz von Lebensfreude liegt auf diesem Romane und denen der Romantiker.¹⁴⁾

헤세 또한 「생의 단계 Stufen」에서 우리 인간은 인생의 각 단계를 명랑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생철학과 낭만주의와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흔히 신낭만주의자로 불리는 헤세 역시 낭만주의자들과 같이 이성보다는 감성, 환상과 내면적 신비를 더 중요시 한다. 낭만주의자들은 기계론적이고 과학만능주의에 반기를 들었고 체험이나 직관에 큰 비중을 두었다. 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헤세는 낭만주의자들과 맥을 같이한다. 바이벨 Kurt Weibel은 헤세의 “마적인 생의 파악 magische Auffassung des Lebens”¹⁵⁾이나, 내면으로의 길, 방랑, 동경 등 여러 가지에서 그가 낭만주의와 밀접한 작가로 보고 있다.¹⁶⁾ 헤세 자신도 신, 인간, 자연과의 관계에서 낭만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그의 작품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한 편지에서 “예술의 종교 - 이것이 나에게서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소박하고 섬세한 산물로서 낭만주의의 목표입니다.”¹⁷⁾라고 말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 생명을 담은 인간 그 자체를

14) Wilhelm Dilthey; Das Erlebnis und die Dichtung. A.a.O., S. 273.

15) Hermann Hesse: Kurzgefasster Lebenslauf. GW. 6. S. 407.

16) Kurt Weibel: Hermann Hesse und die deutsche Romantik. Diss. Winterthur 1954. S. 10.

17) Hesses Brief an Helene Voigt-Diederichs v. 27. 8. 1898. In: Ninon Hesse(Hrsg.): Hermann Hesse. Kindheit und Jugend vor Neunzehnhundert in 2 Bänden. Frankfurt/M. 1978. Bd. 2. S. 278.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성이나 의지 위에 놓으려는 태도가 생철학적인 태도다.¹⁸⁾

III. 삶과 체험

헤세가 직업작가로 나갈 때부터 작가로서 가진 소망과 목표는 어떻게 하면 생의 목소리, 생의 노래를 작품으로 구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런 그의 소망은 첫 소설 작품이자 그의 출세작인 『페터 카멘진트 Peter Camenzind』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내 자신을 작가라고 여기지 않는다. 내가 때때로 쓰는 것은 잡문이지 문학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 한 구석에 나만이 간직한 희망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 날엔가 그 소망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동경과 삶의 위대하고 대담한 노래를 담은 문학작품을 쓰는 일이다.

Für einen Dichter hielt ich mich nicht. Was ich gelegentlich schrieb, war Feuilleton, nicht Dichtung. Im stillen trug ich aber die geheimegehaltene Hoffnung, es werde mir eines Tages gegeben werden, eine Dichtung zu schaffen, ein großes, kühnes Lied der Sehnsucht und des Lebens.¹⁹⁾

이런 삶의 추구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에서 늘 진지하게 다뤄졌다. 그는 1928년의 한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당신도 알고 계시듯이, 일생동안 삶에 대한 동경,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의도적인, 규범화되고 기계적이지 않은 삶의 추구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내가 덤으로 얻은 개인적 자유를 때론 포기하고 참고 견디기를 통하여, 때론 상당한 성과를 통하여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가의 직업은 시간이 감

18) 니체는 몸을 ‘큰 이성’으로 불렀고 이것을 도구적 이성인 ‘작은 이성’ 위에 두었다. 정동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같은 책. 80쪽 참조.

19) Hermann Hesse: Peter Camenzind. In: Hermann Hesse.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Frankfurt/M. 1970. Bd. 1. S. 392. 앞으로는 GW로 표기하며 그 뒤의 숫자는 권수를 나타냄.

에 따라 나의 삶의 이상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보조수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의 목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Bei mir handelt es sich, wie Sie wissen, zeitlebens um die Sehnsucht nach Leben, nach einem wirklichen persönlichen intensiven, nicht normierten und mechanisierten Leben. Wie jeder mußte ich das Plus an persönlicher Freiheit, das ich mir nahm, teils durch Verzicht und Entbehrungen bezahlen, teils aber durch erhöhte Leistung. So wurde aus meinem Dichterberuf mit der Zeit nicht nur ein Hilfsweg, um meinem Ideal von Leben näher zu kommen, sondern es wurde beinahe ein Selbstzweck daraus.²⁰⁾

삶 또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미 정의한 바대로 그것이 생물학적인 것일 수 있으며 또한 누구나가 알고 이해하는, 그리고 인간 각자가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삶은 복잡다단하고 유동적이어서 어느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헤세는 어떻게 하면 다의성과 다면성을 지닌 삶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하고 고심하였다. 그는 이런 삶을 전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떤 언설이나 비유로도 불가능하고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사변적인 것이 아닌 몸소 삶 속에서 얻어지는 여러 삶의 총체들이다.

내가 경외하는 다양성 뒤에 숨겨진 통일성은 어떤 지루하고 막연하고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단일성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삶 자체이다. 유희로 가득차고 고통으로 가득차고 웃음으로 가득찬 것이다. [...], 그것은 어떤 표현이나 비유도 거부한다. Die Einheit, die ich hinter der Vielheit verehere, ist keine langweilige, keine graue, gedankliche, theoretische Einheit. Sie ist ja das Leben selbst, voll Spiel, voll Schmerz, voll Gelächter. [...], sie weigert sich keiner Darstellung, keinem Gleichnis.²¹⁾

그러므로 헤세에게 있어서 삶이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며

20) Hesses Brief an Herrn T.G.M. v. 9. 8. 1929. In:Hermann Hesse. Ausgewählte Briefe. 2. Aufl. Frankfurt/M. 1976. S. 29.

21) Hermann Hesse: Kurgast. GW 7. S. 108.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삶은 살아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모든 예술의 궁극적인 핵심이자 위안”²²⁾이라고 말했듯이 그 자신이나 그의 주인공들은 모두 고난에 찬 길을 가지만 모두 삶을 인정하고 그 소중함을 일깨우는 사람들이다. 헤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삶을 기쁜 일이자 축제”²³⁾로 본다.

그런데 삶을 질식시키고 죽이는 것,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인가? 헤세의 작품에는 그 자신의 체험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패배적이고 절망적인 삶의 전형들이 나온다. 거의 대부분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시골, 고향을 떠나서 학교나 도시나 교외에 접근하게 되는데 이 때 주인공들은 삶의 활기를 잃고 방황하며 삶의 의의를 못 느끼고 절망하여 대부분 죽는다. 학교는 삶을 질식시키고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것이다. 『페터 카멘진트』에서 주인공 카멘진트는 정든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서 학교 교육을 받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부질없는 것”²⁴⁾이라는 것만 확인할 뿐이다. 헤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은 거짓말과 라틴어뿐이라고 말할 정도로 학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결국 고향에 돌아와 안주한다. 『수레바퀴 아래서 Umterm Rad』의 한스는 학교 교육의 희생양이다.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한다는 주위 사람들로 인해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고 삶의 기쁨을 상실했다. 그의 즐거움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다. 개울에서 낚시나 수영을 하며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것이었다. 『나르치스와 골트문트 Narziß und Goldmund』에서 골트문트 역시 신학교에 갇혀 서서히 질식하는 삶을 살다가 용기를 내어 기숙학교를 탈출해 참 삶을 추구한다. 『데미안 Demian』의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갈라놓은 기독교적 도덕의 희생양이 되었으나, 데미안을 만나 생의 기쁨을 다시 찾고 그의 길을 가게 되었다. 헤세 자신이 기독교 도덕에 얽매었으나 후일 니체를 통하여 신앙적 자유인이 되었음을 볼 때 헤세를 싱클레어로 본다면 데미안은 니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헤세가 니체와 그의 철학에 큰 위미를 두는 것도 따져보면 니체가 수 천 년의 낡은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도덕관에 회의를 갖게 했기 때문이다.²⁵⁾

22) Hermann Hesse: O Freunde, nicht diese Töne! GW 10. S.

23) Hermann Hesse: Kleine Freuden. Frankfurt/M. 1977. S. 7.

24) Hermann Hesse: Peter Camenzind. GW 1. S. 361.

지식 또한 삶을 질식시키는 것 가운데 하나다. 「많은 책을 가진 남자 Der Mann mit den vielen Büchern」라는 글에는 지식, 학교, 학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책이 얼마나 삶에는 적대적이며 쓸모없는가가 잘 묘사되어 있다. 오직 책과 교류했고 인류의 가장 고귀한 정신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만 살았던 한 젊은이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소중한 책으로, 세계의 모든 언어로 된 책으로 높은 담을 쌓았는데, 이 위대한 건축물은 일순간에 무너졌으며 그는 그 틈 속에서 생동감 있는 현실을 발견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서 어느 거리의 아가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의 세계를 접하게 된다. 헤세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공허한 세계보다는 맥박이 뛰는 체험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삶 자체는 소중한 것이다. 비록 그 삶이 일회적이고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변명으로 이끌더라도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부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운명과 같은 것이다.

이런 삶은 헤세 자신이 늘 말했고 실천했듯이 어떤 사변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깊은 체험에서 나왔다. 인생은 책이나 선생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헤세의 일관된 생각이다. 『싯다르타 Siddhartha』는 다른 어느 작품보다도 인간의 참 삶에 이르는 길이 사변적인 것 보다는 체험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작품이다. 헤세의 대부분의 작품이 정신과 자연, 수동과 능동, 지식과 지혜, 사변과 실천적 체험을 보여주고 이 둘의 조화와 통일을 통하여 어떤 완전한 인간상이나 삶의 전형을 그려내고 있지만 그는 훨씬 더 후자 쪽에, 다시 말하면 자연, 능동, 지혜나 실천적 체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헤세의 문학 자체가 체험 문학, 고백문학의 큰 틀을 갖기 때문이다. 헤세는 그의 작품을 가리켜 “영혼의 전기 Seelenbiographie”²⁶⁾라고도 했으며 어떤 미학적 순수문학 작품이라기보다는 고

25) Hermann Hesse: Faust und Zarathustra. Zitiert nach Bruno Hillebrand(Hrsg.): Nietzsche und die deutsche Literatur I. Tübingen 1978. S. 154.

26) Hermann Hesse: Eine Arbeitsnacht. GW 11. S. 81: “Beinahe alle Prosadichtungen, die ich geschrieben habe, sind Seelenbiographien, in allen handelt es sich nicht um Geschichten, Verwicklungen und Spannungen, sondern sie sind im Grunde Monologe, in denen eine einzige Person, eben jene mystische Figur, in ihren Beziehungen zur Welt und zum eigenen Ich betrachtet wird.”

백문학이라고 그의 작품 세계를 규정지은 바 있다.²⁷⁾

그는 또 벨티 Helene Welti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멋있는 일만 피리를 불듯 들려주지 않고 언어 마술을 통해 자기 자신의 존재와 체험을, 그것이 아름답든 추하든 간에, 좋고 나쁘든 간에 스스로 보여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살아간다.

Der Dichter lebt nicht davon, daß er den Lesern hübsche Sachen vorflötet, sondern einzig davon, daß er durch die Magie des Worts sein eignes Wesen und Erleben sich selber zeigt und deutet, sei es hübsch oder häßlich, gut oder böse.²⁸⁾

또 다른 곳에서 헤세는 “나의 과제는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인 최상의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나의 것을 아주 순수하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²⁹⁾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앙드레에 Volkmar Andr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비록 그가 종종 삶을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느끼지만 여전히 세상과 삶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철학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알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³⁰⁾ 비록 그가 그것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고 했지만 바로 그것이 생철학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은 헤세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데, 헤세는 『데미안』의 처음 부분에 이렇게 적고 있다.

나의 이야기는 어떤 작가 자신의 이야기보다도 나에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의 이야기이며 한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어떤 꾸매낸, 있을 수 있는 한 이상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일회적이며 살아 있는 인간의 이야기 말이다.

Meine Geschichte aber ist mir wichtiger als irgendeinem Dichter die seinige; denn sie ist meine eigene, und sie ist die Geschichte eines Menschen - nicht eines

27) Vgl. Hesses Brief an Heinrich Wiegand v. 14. 10. 1926. In: Gesammelte Briefe in 4 Bänden. Frankfurt/M. 1973 ff. Bd. 2. S. 154.

28) Hesses Brief an Helene Welti. In: Gesammelte Briefe. Bd. 2. S. 167.

29) Zitiert nach Volker Michels(Hrsg.): Mit Hesse durch das Jahr. Frankfurt/M. 1976. S. 7.

30) Vgl. Hesses Brief an Volkmar Andrä v. 29. 12. 1913. Gesammelte Briefe. BD 1. S. 237.

erfundenen, eines möglichen, eines idealen oder sonstwie nicht vorhandenen, sondern eines wirklichen, einmaligen, lebenden Menschen.³¹⁾

헤세의 주인공들은 그러므로 지적 知的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체험으로 추구하는 자이다. 그들은 삶의 흔적과 지혜를 공허하게 별에게 찾지 않고 책에서 찾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피가 내면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³²⁾

헤세는 그 자신을 괴테에게 가까운, 체험을 중요시하는 작가에 속한다고 자평하였다. 헤세는 인간을 이성적인 사람 Der Vernünftige와 경건한 사람 Der Fromme으로 나누었는데 그는 후자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 ‘경건한 사람’은 종교적 의미의 경건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자기의 삶을 만끽하는 체험적 인간, 전일적 인간을 뜻한다.³³⁾

싯다르타는 수련과 배움의 여러 우회로를 통해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경전과 철학서를 읽고 수도승에게 수련을 받고 불타의 설법을 들어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이르지 못했다. 그가 책과 스승과 감관을 죽이는 수련을 떠나서 속세와 카말라와 가와스와미와 어울려 살았을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 본능과 오관을 살리고 생의 구토와 비애를 겪고 난 후에 그는 삶을 전체로서 파악했으며 지혜와 자기 자신에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좋다고 그는 생각했다. 세속적 향락과 재산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어린아이 때부터 배웠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다. 기억이 아니라 내 위트로 알게 되었다.

‘Es ist gut’, dachte er, ‘alles selber zu kosten, was man zu wissen nötig hat. Daß Weltlust und Reichtum nicht vom Guten sind, habe ich schon als Kind gelernt. Und nun weiß ich es, weiß es nicht nur mit dem Gedächtnis, sondern mit meinen Magen.’³⁴⁾

31) Hermann Hesse: Demian. GW 5. S. 7.

32) Hermann Hesse: Demian. GW 5. S. 8.

33) Vgl. Hermann Hesse: Ein Stückchen Theologie. GW 10. S. 80ff.

34) Hermann Hesse: Siddhartha. GW 5. S. 429.

IV. 생의 긍정

헤세의 생에 대한 파악은 그의 작품의 주인공과 같이 대체적으로 보아 능동적이고 긍정적이다. 그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육체적으로는 류마치스를 앓았고, 눈의 통증과 두통 및 불면증에 시달렸다. 정치적으로는 “조국 없는 놈”으로 몰려 정치적 박해를 받았으며 그 밖에도 개인적, 가정적, 경제적으로도 파국을 맞았지만,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런 역경과 고통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인간을 지혜롭게 만든다고 생각하였다. 「산 속에서의 하루 Tag im Gebirg」라는 시에서 헤세는 삶의 기쁨,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고 있다. 그는 숨을 쉰다는 것만 해도 이미 축복받았다고 노래하고 있다.

산 속에서의 하루

[...]

숨 쉬는 것은 기분이 좋다. 숨 쉬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은 기도며 노래다.

숨 쉬어라 영혼아, 태양을 향해 활짝 팔을 벌려라.

덧없는 한 시간만이라도!

인생은 달콤하다, 환희와 고통도 달콤하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눈송이도 모두 황홀하고

피조물의 중심인 나도 황홀하다.

땅과 태양의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다.

[...]

Tag im Gebirg

[...]

Atmen tut wohl, Atmen ist Seligkeit.

Ist Gebet und Gesang

Atme, Seele, öffne der Sonne dich weit

Deine flüchtige Stunde lang

Süß ist Leben, süß ist Wonne und Schmerz,
 Selig jede verstäubende Flocke im Wind,
 Selig bin ich, ich bin der Schöpfung Herz,
 Bin der Erde und Sonne geliebtestes Kind
 [...] ³⁵⁾

제1차 세계대전의 한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곳곳하게 견디었다. 「어려운 시기의 친구들 Die Freunde in schwerer Zeit」라는 시에서도 “아 이 암울한 시간에/ 사랑하는 친구들아, 이런 생각을 받아 주게나/ 내가 삶을 밝게 보든 비관적으로 보든/ 결코 삶을 나무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³⁶⁾이라고 읊으며 삶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생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면 세상은 밝으며, 새로워지며 흥미로워진다. 『싯다르타』에서 싯다르타는 정신의 세계에만 매어있었고, 그 세계만이 그가 머무를 유일한 성스러운 세계라고 여기고 있었으며 세속의 세계와 그 속에서의 삶을 죄와 타락과 고통으로 여기고 피했었다. 그러나 그는 사고의 대전환을 가졌고 세속적이고 체험적인 삶을 받아들였을 때 그의 삶은 기쁨과 활기가 넘쳤다. 객관적 세계는 동일하지만 주관이 바뀌었을 때 객관은 주관화된 객관이었다. 주인공이 체험의 세계로 출발하는 제2부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싯다르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움을 배웠다. 세계는 변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그 속에 매혹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이 오색영롱한 천태만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며, 항상 달과 해는 비추고 있었으며, 항상 시냇물은 졸졸 소리 내며 흐르고 있었고, 별들은 웅웅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 그러나 이제 깨달음을 얻어 자유로워진 그의 눈은 이 쪽 세계에 머무르게 되었으니, 그는 가시적인 것을 보고 인식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고향을 찾았으며,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피안의 세계를 목표로 삼지 않았다. 이처럼 무엇인가를 추구함이 없이,

35) Hermann Hesse: Tag im Gebirg. Die Gedichte. Bd I. S. 406.

36) Hermann Hesse: Die Freunde in schwerer Zeit. in: Die Gedichte. Bd I. S. 408.

이처럼 단순 소박하게, 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보였다.

Siddhartha lernte Neues auf jedem Schritt seines Weges, denn die Welt war verwandelt, und sein Herz war bezaubert. [...] Dies alles, tausendfalt und bunt, war immer dagewesen, immer hatten Sonne und Mond geschienen, immer Flüsse gerauscht und Bienen gesummt, [...]. Nun aber weilte sein befreites Auge diesseits, es sah und erkannte die Sichtbarkeit, suchte Heimat in dieser Welt, suchte nicht das Wesen, zielte in kein Jenseits. Schön war die Welt, wenn man sie so betrachtete, so ohne Suchen, so einfach, so kinderhaft.³⁷⁾

헤세의 작품에는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후자의 세계는 현실적 삶의 세계, 전자는 정신적 이념의 세계이다. 삶의 세계 지향적인 헤세는 비록 주인공들로 하여금 정신의 세계에서부터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지만, 나중에는 자연의 세계, 현실적 체험의 세계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 본 『싯다르타』나, 『데미안』이나, 『나르치스와 골트문트』가 그렇고 만년의 대작 『유리알 유희 Das Glasperlenspiel』가 그렇다.

『유리알 유희』에서도 고고한 정신세계만을 추구하는 명인 크네히트는 자연을 대표하는 플리니오 데씨노리 Plinio designori를 만나 현실세계, 세속세계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각성하여 현실적인 삶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 명인의 지위를 버리고 버려진 어린 영혼 티토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헌신하며 봉사하다가 죽게 된다. 크네히트가 깨달은 진정한 유희는 지고의 현실 인식과 사랑이며 “모든 현실의 긍정과 각성”³⁸⁾이었다. 크네히트는 그가 추구한 카스탈리엔 세계가 “깨끗이 담이 처진 놀이터 내지 유치원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환상에서 벗어나 피가 흐르고 맥박이 뛰는 현실적 삶에 새롭게 눈 떠, 그 속에서 완성적 죽음을 죽는다.

헤세 자신이나 작품의 주인공들의 삶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다. 그들은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헤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다분히 니체의 영향으로 보인다. 운명애란 “실제로 사는 삶 속에, 디오니소스적인 생의 축제 속에서 별이는 삶에 대한 긍정이다. 그것은

37) Hermann Hesse: Siddhartha. GW 5. S. 388.

38) Hermann Hesse: Das Glasperlenspiel. GW 9. S. 347.

인간이 부족하고 불행하고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주어진 자기 삶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다. 니체는 운명을 사랑하여 운명을 받아들일 때, 니힐리즘의 극한적 형식인 영원회귀에서 오는 허무를 극복하고 자아에 눈을 돌리고 이 현실을 긍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운명애는 생의 철학자 니체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중심테마 가운데 하나³⁹⁾이다.

헤세는 인간의 지혜란 자신의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데서 나온다고 하였다.

지혜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결코 운명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끝까지 체험하고, 그 암시를 따르는 것이고, 그 인도와 자기 자신을 운명 속에서 긍정하는 것이다.

Höchstes Ziel der Weisheit war nie, das Schicksal zu korrigieren, sondern das Schicksal auszuleben, seinen Winkel zu folgen, seine Führung und sich selbst in ihr zu bejahen.⁴⁰⁾

헤세의 긍정적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수많은 책을 비평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에 비중을 두었다. 그래서 어느 책을 비평할 때 “칭찬할 것이 없으면 차라리 침묵을 지켰다”.⁴¹⁾

그가 그린 작품의 주인공들 역시 비록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도 그들은 모두 삶을 사랑하며 고난을 겪어 가면서 기꺼이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페터 카멘진트』의 카멘진트, 『차륜 아래서』의 한스, 『데미안』에서의 싱클레어, 『황야의 이리 Der Steppenwolf』에서의 하리 할러, 『싯다르타』에서의 싯다르타, 『나르치스와 골트문트』에서의 골트문트 - 이들의 삶은 고난에 찬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런 고통을 운명으로 알고 받아

39) 홍순길: 헤세와 니체 I. -운명애를 중심으로- 헤세연구 제 13집(2005). 78 쪽. 니체는 인간 및 자연 삼라만상의 속성에서 오는 영원한 것의 되돌아움을 보고 허무를 느껴 “이런 것이 인생이더냐? 좋다, 그럼 다시 한 번!”이라고 외치며 생을 긍정하며, 운명을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이를 극복하였다..

40) Hermann Hesse: Über die neuere französische Literatur. In: Volker Michels(Hrsg.): Hermann Hesse. Politik des Gewissens. 2 Bde. Frankfurt M. 1977. Bd. 1. S. 353f.

41) Hesses Brief an M. P. v. 22. 11. 1934. In: AB. S. 130.

들여 스스로 그들의 길을 갔으며 이를 통하여 중국에는 자기 자신에 이르게 된다. 그들은 보잘 것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싯다르타는 강물에서 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강과 하나가 되었다. 그의 신비스러운 지혜의 터득은 바로 “삶으로 잠입함”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삶 속으로 잠입한, 삶을 긍정한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 싯다르타가 정신의 세계를 떠나 자연의 세계, 세속적 삶의 세계로 잠입할 때, 그는 새로운 싯다르타였으며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었다.

헤세는 인간의 삶의 정수를 고전음악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전음악 속에는 비극적 인간 운명의 자각과 긍정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생의 명량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고전 음악에 표현되는 인간의 태도는 언제나 동일하며 그것은 언제나 동일한 종류의 삶의 인식에 근거를 두고서 우연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극복을 추구한다. 고전 음악의 몸짓은 결국 인간의 비극성에 대한 자각, 인간 운명의 긍정, 용감성, 명량성을 의미한다! [...] 그 안에는 초인적인 웃음과 불멸의 명량성의 울림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유리알 유희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전체 인생, 행위, 고난에 있어서도 이러한 울림이 있어야 할 것이다.

Immer ist die menschliche Haltung, deren Ausdruck die klassische Musik ist, dieselbe, immer beruht sie auf derselben Art von Lebenserkenntnis und strebt nach derselben Art von Überlegenheit über den Zufall. Die Gebärde der klassischen Musik bedeutet: Wissen um die Tragik des Menschentums, Bejahen des Menschengeschicks, Tapferkeit, Heiterkeit! [...], und ein Klang von übermenschlichem Lachen darin, von unsterblicher Heiterkeit. So soll es auch in unsern Glasperlenspielen klingen, und in unsrem ganzen Leben, Tun und Leiden.⁴²⁾

슈트리히 Fritz Strich도 이런 음악을 “삶과 현실을 긍정하는 명량성”⁴³⁾으로 보았다. 생의 긍정은 또한 유머를 통하여 나타난다. 『황야의 이리』에서 주인공 하리 할리는 유머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 다시 건강하게 시민사회로 돌아 갈 수 있었다. 모차르트로 대변되는 고전음악과 생의 명량성을 이해할 때 인간은

42) Hermann Hesse: Das Glasperlenspiel. GW 9. S. 44.

43) Fritz Strich: Dank an Hermann Hesse. In: Fritz Strich. Der Dichter und die Zeit. Bern 1947. S. 379.

‘불멸인 der Unsterbliche’으로 존재하게 된다. 헤세의 생철학적인 이상은 바로 이 “초인간적 명랑성과 신성한 영원한 웃음”⁴⁴⁾인 것이다.

V. 나가는 말

헤세문학의 여러 주제를 관통하는 철학적 근원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이 논문이 쓰여 졌다. 이런 시도는 어려운 일이나 의미 있는 일이다. 한 작가에게 영향을 미친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을 찾기란 쉽지 않으며 또 그 작업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어느 인간이나 작가이든 간에 그에게 영향을 주는 사상과 이념은 어느 특정한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한 작가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수용자로서의 작가는 작가 나름대로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고유의 사상은 그의 인생관이나 이상과 섞여 그의 것으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헤세의 니체 수용과정도 이렇다. 헤세는 니체숭배자이며 동시에 반니체적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헤세가 니체의 생철학에 관심을 가진 것이 니체의 전 사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은 아니다.

헤세에게 영향을 미친 사상이나 사건이나 인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기독교에서 출발한 동·서양의 제 종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와 신비사상, 괴테를 비롯한 수많은 낭만주의 작가들의 문학세계, 야콥 부르크하르트의 역사와 문화사관, 모차르트와 바흐의 음악세계, 물리에르를 비롯한 수많은 화가들의 그림세계, 프로이트와 랑 박사의 심리학, 노자와 장자의 도 사상 등 고찰해야 할 것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특히 헤세는 어느 한 이념이나 사상에 얽매이거나 깊이 빠지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는 작가임을 생각할 때, 그의 문학 속에 흐르는 사상의 원류를 찾기가 어렵다.

헤세가 문학과 철학에 대해 깊이 몰두하게 된 때는 튀빙엔의 서점원으로 있을 때다. 이 시기는 작가가 되기 위한 토양과 기반이 다져지는 시기이다. 이때 헤세가 심취했던 철학자가 니체다. 이 때 니체는 헤세의 우상이었다. 몇 년 뒤 헤세가 바젤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도시는 헤세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역

44) Hermann Hesse: Der Steppenwolf. GW 7. S. 346.

사, 문화, 예술, 철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헤세의 생과 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다. 이 도시에서 헤세는 니체, 바그너, 딜타이, 야콥부르크르트, 뵘클린과 교류하든가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헤세 연구에 있어서 이 바젤 시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시기에 헤세는 니체와 딜타이로 대표되는 생철학에 몰두했으며 이런 사상적 근거에서 후일 그의 문학 작품들이 쓰여졌다.

삶과 생명에 대한 끊임없는 시도가 그의 작품들이다. 헤세가 체험작가이자 고백작가로 계속 그의 삶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생철학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헤세는 영혼의 카운셀러이다. 그는 삶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하고 추체험케 함으로써 유머와 명량성으로 이끈다.

그의 삶이 고난과 역경의 점철이었지만 그는 삶을 끝까지 체험하고 탐구함으로써 극복하였으며 예술작품으로 이끌었다. 프레르킹 Johann Frerking이 헤세 탄생 70주년에 행한 연설에서 헤세를 가리켜 “삶의 예술 die Kunst des Lebens”⁴⁵⁾을 실천한 작가라고 말한 것은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차 문헌

Hesse, Hermann: Gesammelte Werke in 12 Bänden. Frankfurt/M. 1970.

ders.: Ausgewählte Briefe. 2. Aufl. Frankfurt/M. 1976.

ders.: Die Gedichte in 2 Bänden. Frankfurt/M. 1977.

ders.: Kleine Freuden. Frankfurt/M. 1977.

ders.: Gesammelte Briefe in 4 Bänden. Frankfurt/M. 1973 ff.

Hesse, Ninon(Hrsg.): Hermann Hesse. Kindheit und Jugend vor Neunzehnhundert in 2 Bänden. Frankfurt/M. 1978.

Nietzsche, Friedrich: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n in 15 Bänden. Hrsg. v.

45) Johann Frerking: Dank und Gedenken. Hannover 1947. S. 6.

Giorgio Colli und Mazzino Montinari. München 1980.

2차 문헌

김정현: 니체, 생명과 치유의 철학. 책세상. 2005.

정동호 외: 오늘 우리는 왜 니체를 읽는가? 책세상. 2006.

_____: 니체 연구. 탐구당 1983.

_____: 니체 철학의 현대적 조명. 청람. 2001.

차하순, 정동호: 부르크하르트와 니체. 서강대학교출판부. 1986.

홍순길: 헤세와 니체 I. (헤세연구 13). 2005.

_____: 헤세와 니체 II. (헤세연구 14). 2005.

Böttger, Fritz: Hermann Hesse. Berlin 1977.

Dilthey, Wilhelm: Das Erlebnis und die Dichtung. 15. Aufl. Göttingen 1970.

Frerking, Johann: Dank und Gedenken. Hannover 1947.

Hillebrand, Bruno(Hrsg.): Nietzsche und die deutsche Literatur 2 Bände. Tübingen 1978.

Höffe, Ottfried(Hrsg.): Klassiker der Philosophie in 2 Bänden. Bd. 2. 1981. München.

Michels, Volker(Hrsg.): Hermann Hesse. Politik des Gewissens. 2 Bde. Frankfurt M. 1977.

Strich, Fritz: Dank an Hermann Hesse. In: Fritz Strich. Der Dichter und die Zeit. Bern 1947.

Weibel, Kurt: Hermann Hesse und die deutsche Romantik. Diss. Wintertur 1954.

Zusammenfassung

Hesse und die Lebensphilosophie

Hong, Soon-Kil (Mokwon Uni)

Die Lebensphilosophie zu untersuchen, die ständig auf die Themen und Motive in den Werken Hesses wirkt, ist die Aufgabe der vorliegenden Arbeit.

Seit der Tübinger Zeit, als Hesse am Anfang seiner literarischen Karriere stand,

vertiefte sich Hesse in die Gedankenwelt verschiedener Dichter und Philosophen. Unter ihnen waren einerseits Goethe und die Romantiker, andererseits Nietzsche und Jakob Burckhardt. Die Schwärmerei für die Gedankenwelt Nietzsches setzte er besonders in Basel fort. Dort lernte er auch Dilthey kennen. Die Lebensphilosophie, die durch die beiden Philosophen vertreten wird, spielte eine entscheidende Rolle im Leben und Schaffen Hesses.

Bei Nietzsche fand Hesse den Wert des Lebens erneut in der Form der griechischen Mythologie. Der apollinischen Vernunft zog er die dionysische Vitalität vor. Er legte den Schwerpunkt auf das Leben, die Natur und das Diesseits. Wie Nietzsche weigerte sich Hesse, dem Lebensfeindlichen zu folgen, wozu die Schule, die Kirche u.a. gehören. Statt dessen versuchte er das Lebensfreundliche anzunehmen: die Lebensfreude, die Lebensbejahung, die Naturliebe u.a..

Bei Dilthey lernte Hesse, daß die Poesie zum größten Teil Darstellung und Ausdruck des Lebens sei. Darüber hinaus lernte er bei ihm das erlebte Leben des Individuums.

Unter der Wirkung der beiden Lebensphilosophen entwickelte sich Hesse zum Bekenntnisdichter, der sein eignes Leben in Form einer Seelenbiographie schreibt. Die Helden seiner Werke bejahen das Leben trotz all ihrer Schwierigkeiten und erreichen die Heiterkeit des Lebens dadurch, daß sie den Unsinn des Lebens mit Humor und amor fati überwinden.

【주제어】 : 헤세, 니체, 생철학, 삶의 체험, 생의 긍정

【 Schlüsselbegriffe 】 : Hesse, Nietzsche, Lebensphilosophie, Lebenserlebnis, Lebensbejahung

【 필자 E-Mail 】 : hongsk@mokwon.ac.kr

논문투고일 : 2007.04.29 | 논문심사일 : 2007.05.15 | 게재확정일 : 2007.06.02